이렇게 들었다

가정폭력

"인내는 自他의 평화 낳는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남편 중 상당수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경우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매 맞는 아내의 상당수는 '언젠가 나아지리라'는 희망과 자식들 때문에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준 울산경찰청장은 23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 낸 박사학위 논문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개발원, 여성특위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폭력 자료 및 수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99년부터 2년간 가정폭력 수사기록을 집계한 결과, 폭력 남편의 아내 구타 이유는 무시하는 태도, 살림이나 시댁식구에 대해 등한시, 자녀교육소홀, 아내 외도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구타 이유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의처증, 주벽 등 성격이상,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대조를 보였다는 것이다.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오기 마련이다"(아난무사불기흥경)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할 때 가정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복지팀장 김승권 박사가 지난 1년간 1만59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7.4%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부부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8년 조사 때 발표한 6.2%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아동학대 24.7%, 부모학대 0.1%, 기타 가족원간 폭행 1.0% 등 가정폭력 발생률은 30%에 달했다.

이런 때일수록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이치를 깨달아 가족의 평화는 물론 모든 생명의 안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는 자타(自他)의 평화를 낳는다. 노여움이 없으면 자신이 평화롭고, 원망하지 않으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니, 이는 바로 나와 남이 평화로운 길이다"(섭대승론)는 가르침처럼 가족 모두가 하심하며 살아야겠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가정은 나날이 해체되고 있지만, 우리는 가족 한사람 한사람이 바로 나를 이루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곳은 여전히 가족의 품, 우리의 가정뿐이기 때문이다.

김재경 기자

배아복제, 인간윤리에 정면 도전

불자 세상보기

생명조작 '맞춤아기' 탄생

질병치료 목적이라지만

'수단' 정당화 될 수 없다



김상득
전북대교수
윤리학

누군가가 미끄러운 언덕길에 10톤 트럭을 세워 두었다.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불편하였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 트럭을 5m 아래로 옮기려고 하였다. 이들은 트럭을 5m만 옮기려고 버팀돌을 제거하였지만 불가항력적으로 트럭은 그만 언덕길 아래 큰 도로에까지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 결과 큰 도로에 통행하는 자동차와 행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인류의 최고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 존엄성이다. 인간 존엄성이란 가치가 큰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와 행인의 편리함에 비견된다면, 각 개인의 질병 치료는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불편함에 비견될 수 있다. 배아복제는 바로 언덕길 위에 있는 10톤 트럭을 5m 아래로 옮기는 일과 같다. 실제로 배아복제나 인간게놈 프로젝트는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배아복제가 인류의 최고 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미 생식복제 과학자 파노스 자보스 박사가 앞으로 60일 이내에 인간 배아를 복제하겠다고 공언하자 종교계와 생명윤리학자들이 생명윤리 물음을 제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유전자 지도 및 유전자의 기능을 밝힌 다음,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도 인간이 이처럼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해도 좋은가의 의문이 제기되지만, 배아복제는 이보다 더 큰 생명윤리 물음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복제된 배아 역시 정자와 난자의 결합체인 수정란과 그 존재론적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배아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지만, 배아는 다른 생명체와 다른 독특한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하나는 한 개인의 생물학적 역사가 바로 이 배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배아로부터 발달한 존재이다.

다른 하나는 배아는 여성의 자궁에 착상되면 언제든지 한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배아 이외의 그 어느 생명체도 한 인간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배아는, 비록 질병 치료라는 선한 목적에 도움이 되지만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나면 이용가치가 사라져 폐기처분된다.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배아복제는 처음부터 배아파괴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다.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질병 치료라는 공공선을 실현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간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배아복제가 게놈연구로 얻어진 유전정보와 결합되어 인간개체 복제로 이어질 경우 '디자이너 아기' 생산이란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져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이 배아복제, 인간게놈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를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해 공정하게 사용할 지혜를 갖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이를 망각한 채 언덕길 위에 있는 트럭을 5m 아래로 옮기려다 인간 존엄성이란 인류 최고 가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성체세포로부터도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자들이 굳이 배아복제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가 자못 의심스럽다.

열 린 마 당

비폭력 평화실현의 과제

최근 종단내 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7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비폭력 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22일 조계사에서 '비폭력 평화실현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허우성 교수(경희대 철학) 김광식 씨(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의 '불교정신에 입각한 폭력의 정의' '근현대 불교사에 나타난 폭력문제' '비폭력 평화 실현을 위한 현실적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회로 진행됐다.

"폭력의 바닥엔 삼독심 작용"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



간디는 진리가 비폭력, 청정행, 불투도 그리고 다른 심덕들을 포함한다고 했다. 간디의 비폭력(불살생, ahimsa)은 인간 이하의 생명체, 심지어 식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폭력은 정치와 경제적 구조, 근대 인간중심주의 자체에 깊히 침투해 있다. 근대적 자아의 자유와 권리 행사에 이미 상당한 폭력이 내재해 있다.

폭력과 소유의 의미에 대한 국민적 담합이 약자와 약소민족, 동물에 대한 폭력을 허용한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근대적 자아는 '짐승같은' 행동을 많이 용납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불교계가 비폭력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각종 명분을 내세워 자행된 폭력에 대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자기고백과 인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고백과 자각이 비록 한국불교가 저지른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유사사건의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를 통해 비폭력의 미래를 만들자는 진지한 결의가 필요하다.

불교내 폭력의 요인이 종권, 돈, 명예욕 등 세속적 이익과 관련돼 있지만 그런 폭력의 바닥에는 탐진치 삼독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승단내부의 폭력에 대해서는 불교도들이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산중공의제등 전통 살릴때"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현재 한국불교가 직면한 폭력문화의 원인분석과 해결을 위해서는 폭력적 문화가 배태된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현재 한국불교가 직면한 폭력문화는 일제권력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갈등에서 비롯되어 50~60년대 정화과정에서 고착화돼 왔다. 일제하-해방공간-정화공간-분규공간-개혁공간으로 이어지는 한국불교사에 있어 불교계 내부의 폭력문화 기원은 식민지불교 체질의 성찰과 극복의지의 부재가 한 요인이다. 폭력문화의 고착화는 불교정화시기의 비불교적 행태와 개항이후 불어닥친 세속화의 영향, 승려의 이권욕 및 사리사욕 등으로 요약된다.

94년이후 종단개혁을 추진하고 그를 저지하였던 양측에서 일정 부문 폭력문화가 개입되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종단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 프로그램 및 내용에 폭력적인 요소의 배척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폭력문화의 지속화 다양화 일상화는 전통적인 산중공의제, 대중공사가 발전하지 못한데 한 원인이 있다. 이런 양상은 불교계 내부의 성찰문화와 역사의식의 부재,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 가치의 약화가 결합되면서 배태된 것이다. 수행풍토의 회복, 간화선 위주 수행풍토의 극복, 승가교육의 체계화 등 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성교육 강화로 폭력근절"

김성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불교는 포교 또는 호교를 위해 단 한번의 전쟁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종교임에도 유독 우리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폭력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폭력사태가 불교정신의 기치하에 행사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폭력해결의 전망은 밝다.

선불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계율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막행막식이 나타나 폭력에 무감각한 문화가 생겼다. 폭력사태의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종무행정제도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현재 조계종이 추진중인 노력이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지속될 경우 폭력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폭력문화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행정적 측면에서는 세속적 이익과 관계된 폭력사태의 예방을 위해 스님들의 노후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불교교육에 있어서는 공견과 막행막식에 빠지지 않는 바른 선불교관 확립, 단계적인 심성훈련 뒤 참선교육 실시, 참선수행전 참회기도, 자비관, 부정관 등 기초수행의 대폭 강화 등이 필요하다.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한국불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불교의 궁극 목표인 깨달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 추구과정에서 요구되는 마음자세를 체득케 하는 실질적인 심성교육이다.

토 론

이번에 개최된 세미나는 한국불교의 고질적 병폐인 교단 내 폭력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진정한 참회와 불교적 평화정신의 회복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자리였다.

그러나 불교가 폭력문화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세미나였음에도 일부 스님들만이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다.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한국불교의 고질적인 폭력문화가 불교정화 및 개혁과정에서의 폭력사용과 선불교에 대한

"폭력문화 청산" 사부대중 한목소리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교학과 계율 무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교육제도 개선, 사찰 재정 공개, 승려노후복지 제도화 등 비폭력 평화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송위지 교육연구소장은 "승가의 양심 및 위계질서 회복, 온전한 출가동기를 갖춘 거룩한 승가의 모습을 보일 때만이 폭력문화는 청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성렬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불교 내 폭력문화는 정치권력 등 외부요인에 의해 초래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불교계 내부의 민주주의 확립, 다수 대중의 합의도출, 원로의 권위 확립 등을 제안했다.

김재경 기자